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교육 특화전략

양진건*

<목 차>

- | | |
|--------|---------|
| I. 서론 | III. 결론 |
| II. 본론 | 참고문헌 |

I. 서론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제주도는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교육을 새롭게 체계화하기 위한 논의가 제기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의 역사는 교육체제라는 것이 각 공동체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맥락과 결코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제안하고 있는 교육부문의 여러 계획안들은 바로 그런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는 외국대학 설립 및 운영요건 완화, 외국인의 초·중등교원 임용 확대, 초·중등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초·중등 자율학교의 자율권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교육재정지원 확대와 같은 소위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계획안들은 기존의 제주교육 환경을 대폭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계획안들 가운데 자주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학교와 외국대학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특화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1. 외국인학교 문제

1) 조명되는 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함께 교육부에서 가장 먼저 공론화 된 것이 외국인학교(alien school) 문제이다. 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학교를 말한다. 좀더 엄격히 말한다면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자국민의 교육을 위해 설치하는(외국인 전용) 교육기관이 외국인학교이다. 따라서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제도로써 설립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학교가 경제특구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안에서 조명을 받게 된 것은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개선책 때문이다.¹⁾ 다시 말하자면 외국인들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학습기회 확대와 보장 차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제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외국인학교를 조명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원래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자신들의 정체감을 위해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1912년에 설립되어 개교 90주년을 맞고 있는 서울외국인학교의 역사가 그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작금에 들어 외국인학교에 대해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처럼 향후 외국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중요한 외국인 서비스체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학교는 교육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먼저 외국인들이 일정 인원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설치되는 것이 통례였지만 경제특구나 제주도에겐 아직 거주

1)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차원으로 기업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검역·검사제도 개선, 외국인학교 설립 확대, 영어교육 확대, 외국인등록제도 개선, 방송 등 각종 외국어서비스 강화 등을 정부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아래 외국인학교를 먼저 설치하고 그것을 유인체제로 하여 차후 외국인들을 불러들이자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런 전략도 나름대로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학교는 설치하였지만 재학할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국제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미명아래 내국인들을 불러들이려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기준이라는 것이 매우 부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법에는 원래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기준이 5년 이상 해외 거주자였지만 원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를 인정하여 3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경제특구 계획에서 외국거주 요건을 아예 철폐함에 따라 제주도 역시 외국거주 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이것을 두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라고 하지만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의 본질을 호도 하는 여론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각본대로 한다면 경제특구나 제주도에서는 당분간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가 운영될 공산이 크며, 그곳에 거주하려는 외국인들은 추후 내국인들이 다니는 외국인학교에 다녀야하는 본말이 전도된 행태가 이루어질 판이다.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과연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인지 분명히 짚고 갈 문제이다.

2) 예상되는 문제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기준이라는 것이 매우 부수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다루어지게 되면 불가피 다음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째는 외국거주 요건이 철폐됨으로써 내국인들의 자유로운 입학이 허용되면 현재 외국인 학교의 연간 등록금이 연간 500만원에서 최고 1400만원선임을 고려해볼 때 이런 거액의 등록금을 무리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계층만이 입학수혜자가 될 거라는 것이다.

2002년 현재 일부 외국인학교는 비싼 등록금 탓으로 정작 순수 외국인 자녀는 1명도 없고 모두 내국인 자녀만 다니고 있는 등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002년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8개 외국인학교 가운데 성

남 서울국제학교의 1년 분 등록금이 유치원 1120만원, 초등학교 1190만원, 중학교 1330만원, 고등학교 1450만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비싼 학교로 꼽혔다. 성남 서울국제학교의 고교생 등록금은 도내 1급지 인문계 공립고교의 1년 등록금이 95만여원인 것과 비교할 때 무려 15배나 비싼 편이다. 2)

그 두 번째 문제는 현재 내국인들이 선호하는 외국인학교라는 것이 영어 때문에 American school이 절대적이며 따라서 외국거주 요건이 철폐됨으로써 내국인들의 자유로운 입학이 허용되면 거액의 등록금을 무리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계층들이 American school로 모여들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이 가능해지고 학력 인정이 가능해지게 되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외국인학교들이 설립될텐데 이때 예상되는 학교는 대부분 American school들일 것이며 외국어학원, 사립학교 등의 American school 전환을 통한 내국인들에 의한 교육사업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될 때 외국인학교는 설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귀족학교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뿐더러 American school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오히려 다양한 외국어 경험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당면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의 외국거주 요건 철폐를 주장하는 이유로 교육부측에서는 외국에서 귀국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늘려주고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인데 특히 그 이면에는 내국인들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편의적 고려가 숨겨져 있다. 즉, 내국인들을 외국인학교에 보내어 외국어를 강화시키겠다는 매우 편의적인 발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발상에는 내 손으로 외국어를 가르칠 수 없으니 남의 손을 빌리겠다는 패배주의적 저의마저 엿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교육의 부실화를 자초한다는 비판³⁾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2)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의 인디안 헤드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생 500만원, 초·중·고교생이 각 700만원이고 의정부 국제크리스천학교의 등록금은 유치원생과 초등생 380만원, 중·고등학생 440만원이다. 이는 전국 13개 외국인학교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인학교는 외국인들이 입학을 꺼려 재학생 모두가 내국인인 곳도 있다. 전북 외국인학교의 경우 한해 등록금이 700만~800만원으로 다른 외국인학교에 비해 싼 수준이지만 재학생 15명 중 5명은 미국 국적의 한국인 자녀이고 나머지는 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한국인의 자녀들로 순수 외국인인 1명도 없다. 성남 국제학교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 초등~고등학교 재학생 900여명 중 내국인 자녀는 50~6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국내인가 학교시설이지만 외국인과 내국인간 등록금 차이를 두지 않기 위해 수업료 등을 포함한 학비기준을 미국 내 현지학교의 학비규정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국내 자본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내국인이 지금보다 수월하게 입학하기 시작하면 외국인학교가 늘면서 수업료도 내려가고 교육의 질이 좋아져 내·외국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을 경제부처들이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재경부는 해외로 조기 유학을 가는 것보다 국내 외국인학교를 활성화해 이런 학생들을 흡수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외국인학교를 통해 외국어교육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나 외국유학 증가세를 막아보겠다는 것은 외국인학교 설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발상임과 동시에 이로 인해 공교육의 부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효용성에 급급한 나머지 교육의 장기지속적인 계획성을 포기하는 현재주의적 기형의 발상이다.

이러한 예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싱가포르나 홍콩 그리고 상하이 푸둥 지역만하더라도 각각 25개, 62개, 9개의 외국인학교가 설치되어 있지만 모두 완성된 외국인 주거환경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그 어느 학교도 내국인을 위한 별도의 용도로 편법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3) 싱가포르의 예

25개의 외국인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설립취지 그대로 거주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목적으로는 학교교육이외에 교육부 산하의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978년 교육부 산하에 언어센터(Ministry of Education Language Centre)⁴⁾를 설립하고 초기에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를 가르쳤는데 1982년부터는 고등학교반도 개설하였다. 학생들은 각자가 소속한 중·고등학교에서 수업과 과외활동을 마친 후 방과후의 수업으로 언어센터에 다니는데 수업은 주 2회이고, 1회 2시간으로 연간 시간 수는 약 100시간 정도이다.

이들 가운데 일본어 이수자는 2002년 4월 현재 약 1200명으로 3개의 언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평균적인 일본어 능력 수준은 중학교 졸업 시에는 일본어 능력시

3) 전교조가 외국인학교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공교육 부실화의 문제이다.

4) <http://www1.moe.edu.sg/moelc/>

험 3급과 2급의 중간 정도이고 고등학교 수료 시에는 일본어 능력 시험 2급에서 1급 정도로 꽤 높다. 따라서 수업의 진도는 빠르고 숙제도 많다. 각 소속 학교에서의 다른 교과나 과외활동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도중에서 포기하는 학생도 많다. 2000년도 중·고등학교를 합쳐 각 학년의 수료자는 912명으로 당초의 등록자 1316명의 69%이다.

어학센터의 외국어교육은 학생들을 각 해당 국의 일류 대학에 유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귀국 후에는 싱가포르 정부기관이나 동 센터의 교사로 활약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장학금으로 유학을 하는 경우 귀국 후에는 3년 간 정부기관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4) 특화 전략

싱가포르의 정책에서 보듯이 외국어교육강화나 국제인력 양성을 위해서 외국인학교의 편법적인 운영으로 공교육을 부실화시키기보다는 공교육과 함께 하는 독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하여 외국어 문제에 대해 많은 건설적인 제안들이 발표되고 있는데⁵⁾ 필자는 현재 제주도의 국제화장학재단 기금의 확충과 활용을 통해 싱가포르의 언어센터와 비슷한 중고등학생 대상의 외국어 인텐시브 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해본다. 이를 위해 현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가 실시하는 과학영재센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외국어 관련 인프라가 비교적 나은 제주대학교가 주관하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외국어 인재를 선발하여 방과후 장기적인 인텐시브 코스를 설치해보자는 것이다.

제주도 상주 외국인들의 추이를 보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학교를 설치하고 지원하는데는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환경 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미리 제주도에 외국인학교를 설치하고 내국인들을 제한 없이 입학시키겠다는 발상은 아무리 보아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내국인의 해외거주 요건을 철폐하기보다는 5년 또는 3년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5) 이들 가운데 2002년 8월 12일 제주언어학회 세미나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언어정책>에서 발표된 김중훈의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언어정책”은 매우 탁월한 시사성을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1995년에 발표된 제주도교육청의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안>도 이 부분에서 매우 선도적인 보고서이다.

을 위한 서비스 체제로서 외국인학교는 외국인학교대로, 외국어강화를 위한 또는 국제인력 양성을 위한 체제는 또 그것대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이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도 살리고 우리의 공교육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2. 외국대학(분교) 유치 문제

1) 전문대학원 유치 전략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설립·운영의 특례를 보장한 외국대학의 문제는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외국어로 강의하는 ‘국제교육 콤플렉스(complex)’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⁶⁾하였는데 국제교육 콤플렉스는 동북아 국가의 민간 및 공공부문의 지도자 양성과 국내외기업의 중견간부, 사회 주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 전략 경영대학원 및 초·중·고등학교 대상의 기숙학교(boarding school) 설립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경쟁력과 지식 자본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교육부문의 집중 특화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용역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SK 측은 관련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제교육 콤플렉스의 용역 내용에서도 보듯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등 외국의 우수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s) 유치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외국 우수전문대학원의 국내진입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하고 있는 경제특구의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이며 정부측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유치에 있어서는 학사 과정보다 MBA 과정 등 전문대학원 과정의 유치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 아래 현재 외국의 대학원이 국내에 좀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나아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중⁷⁾이며 정부 내에 외국대학원 유치를 전담하면서 부지 및 건물 알선 등

6) SK 손길승 회장은 국제교육 콤플렉스(complex) 조성에 관한 수익성과 타당성 분석 용역비로 11월 19일 제주도에 2억원을 지정 기탁했으며 제주도는 이 기탁금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주어 ‘제주 국제교육 콤플렉스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지시했다.

7)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강의 윤곽은 일부 언론 발표나 교육부 자체의 보고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열거되는 것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된 것이기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task force팀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MBA 과정의 경우 17~18개월만에 졸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2년 이상으로 의무화돼 있는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를 추진키로 하고, 연내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하였다.

외국대학원 분교 설치는 우선적으로 세계 톱클래스 수준 한해 허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우수 외국대학원 분교의 운영 성과와 국내 대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오는 2005년 이후 외국 대학과 일반 대학원의 국내 분교도 허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외국대학원 분교 설치가 허용될 경우, MBA와 예체능계열이 우선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 규정에는 교지(校地)나 교사(校舍)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도 가능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의무가 면제되며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을 인정하고 한국인 이사 3분의 1 이상 선임 의무를 없애주는 등 내국인의 대학원 설치 규정에 비해 크게 완화된 내용이 포함된다.

또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원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 등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현재 허용돼 있는 양쪽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인정하는 복수학위(dual degree) 이외에 제3의 새로운 학위과정을 공동 개설해 양쪽 학위를 인정하는 공동학위(joint degree)도 추가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경우 MBA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되, IT, BT 등 국가 전략 분야는 국내 대학에 매년 교육 인프라 구축비, 연구비, 프로그램 지원비용, 우수학생 유치비용을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2) 싱가포르의 예

이러한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를 통한 교육부문의 집중 특화개발은 특히 이웃국가 가운데 싱가포르⁸⁾의 대표적인 전략이다. 아시아의 경제허브를 꿈꾸고 있는 싱가포

보다는 아직 논의 중인 안들이며 2002년 연내에 확정된 안들이 발표될 것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르 정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유치에 있어서는 학사과정보다 M.B.A과정 등 대학원 과정의 유치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90년대 말부터 World-Class Universities Program에 의거하여 유명 외국대학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세계일류의 The Chicago University of Graduate School of Business와 INSEAD (Europe Business School Ranking 1위)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22개의 M.B.A 과정이 있으며 이 가운데 20개⁹⁾가 외국계 대학원이다.

싱가포르의 외국대학원 유치를 위한 World-Class Universities Program은 싱가포르의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아니라 경제개발위원회 즉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EDB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결국 싱가포르의 외국대학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DB는 2000년 미국의 명문 시카고대학 경영대학원이 싱가포르 도심 한복판에 분교(Chicago GSB)¹⁰⁾를 세울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우를 보장하였다.¹¹⁾ 아시아 첫 번째 영구캠퍼스로 싱가포르를 선택한 미국 시카고대학 경영대학원은 건물을 장기 임차하는 방식으로 분교를 설립했는데, 투자비용은 대략 1500만달러(195억원 상당)로서 현재 24개 국가에서 온 85명이 재학 중이며 싱가포르 기업체와 주문식으로 경영자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 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도이체 방크 부장, 다임러 크라이슬러 마케팅 이사, 도이체 텔레콤 간부 등 대부분 외국계 기업 간부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20개월 간의 수업을 마치면 미국과 똑같은 학위를 받는다. EDB 측은 외국 유명 대학원을 유치하는 것은 싱가포르 인재를 키울 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모으고

8) 싱가포르의 교육에 대한 정보는 Donald C. Wilson David, L. Grossman, Kerry J. Kennedy (Editor) 『Asia and the Pacific: Issues of Educational Policy Curriculum and Practice』, Detselig Enterprises; ISBN: 1550590081; (December 1990)를 참고.

9) <Hemdale Associates>, <Thames Open Learning Centre>,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Marketing Institute of Singapore>,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Singapore>, <Asia Pacific Management Centre>, <Portman>, <Sumbershire>, <INSEAD>, <Hartford Management Centre>, <PBS Marketing & Management>, <RDI Management>, <Ngee Ann - Adelaide Education Centre>, <TMI>, <PSB>, <TMC>, <Chicago GSB>, <Center for American Education>, <Institute of Financial Management>, <AEC> 등이 그것이다.

10) <http://gsb.uchicago.edu/>

11) 싱가포르 중심가 페낭 로드(Peranakan Road)에 위치한 문화재 ‘탄역니(House of Tan Yeok Nee)’를 내주는 조치를 취했다.

외국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EDB는 또 프랑스의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¹²⁾의 시내 분교 설립도 허용했다. 세계적인 MBA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인시아드는 지난 99년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역 분교를 설립했다. 유럽 비즈니스스쿨 랭킹 1위인 인시아드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 아시아 캠퍼스를 찾던 중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 내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자극으로 외국대학의 유치계획을 발표하면서 성사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부지 알선은 물론이며 비용 차입과 재정보증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시아드 싱가포르분교 부지는 3000여평으로 분교에 시설 투자한 비용만 하더라도 2000만달러(260억원 상당)에 달하며 현재 21명의 교수가 35개국에서 찾아온 115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싱가포르의 외국 대학 분교에는 현재 100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고, 외국인 교수의 수는 50여명에 달한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노력으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대학교육이 경제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평가에서 핀란드와 아일랜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3) 전문대학원 유치 전략의 문제

이로써 살펴보건대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를 통한 교육부문의 집중 특화개발 전략은 이제 전략이기보다는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정책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M.B.A와 같은 특화 과정의 대학원은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필요로 하는 대학에 비해 투자 리스크가 덜할 뿐 아니라 수익성도 훨씬 높으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위한 특화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내실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판단이 큰 몫을 하는 것 같다.

대학원의 경우, 규모는 작지만 수익모델이 대학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판단 때문에 최근에는 자치단체조차 외국대학원 과정을 유치하기 위해 남다른 의욕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강남구청은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온라인 석사과정 SCPD(Stanford Center for Professional Development)를 2003년 3월부터 개설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우선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외국대학원 과정을 유치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과정이

12) <http://www.insead.fr/Programmes/MBA/singap.htm>

통신매체에 의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외국 사이버대학원의 진출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요한다.

이 과정은 스탠포드 공과대학 교수진이 주요과목을 인터넷을 통해 강의하고, 강남구청은 수강생 모집, 관리, 시험장소 제공, 시험감독 등을 맡는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대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CPD는 세계적 권위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최첨단의 쌍방향 원격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스탠포드 재학생들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스탠포드대학의 학위가 수여된다.

주지하다시피 외국 전문대학원이 선호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수익”과 “특화”라는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다. 교지(校地)나 교사(校舍)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도 가능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의무가 면제되며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을 인정하고 한국인 이사 3분의 1 이상 선임 의무를 없애주는 등의 외국대학원 설치를 위한 특례 규정들은 바로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장치들인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대학원 유치에 경제개발위원회(EDB)가 전적으로 주도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교육의 논리보다는 경제의 논리에 우선한 시장주의 원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시장주의 원리에 입각할 때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외국대학원은 언제라도 철수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인한 교육의 안정성이 부실해지고 급기야 ‘교육실패’를 자초할 수 있어 교육의 사회적 효율성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매우 많다.

따라서 지나치게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외국 전문대학원 유치 전략을 제주도가 채택하게 된다면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물론 이런 위험 부담은 몇 개 정도의 대학원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규모의 문제”와도 상관이 있는데 제주도의 여건에서는 1~2개 정도의 세계적인 우수한 외국 전문 대학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2개 정도의 세계적인 전문대학원만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인센티브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철수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제주도의 우수 외국 전문대학원 유치는 비슷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경제특구는 물론이며 동북아 여러 국가들 특히 싱가포르 등과 경쟁이 불

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외국어로 강의하는 ‘국제교육 콤플렉스’ 내에 외국대학원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20여 개의 외국 전문대학원을 유치하고 있는 싱가포르에 비해 영어인프라나 각종 노하우가 부실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시카고경영대학원은 원래 아시아에서 여러 도시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모색하였으나 동경, 서울, 홍콩, 상하이, 쿠알라룸푸르 등의 도시보다 공항이 가깝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영어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사용숙소를 구하기 쉽고,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물가가 비싸지 않아 싱가포르를 선택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어로의 의사소통 문제는 외국 전문대학원의 진출과 철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4) 대학 유치와 일본의 예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필자는 수익이 없을 거라는 이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학 유치 문제에 대해 오히려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외국대학원 대신에 대학만을 유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진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이 대학 유치를 강조할 수도 없다. 시장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외국대학을 유치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일본의 예처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시장실패로 인한 교육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일본¹³⁾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나가소네 내각이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미국대학 분교 유치를 장려하고 국고를 지원했던 일본은 한 때 세계 최대 규모인 42개교를 유치하였으나 91년 14개, 94년 27개가 폐교 신청을 하고 지금은 템플대학과 남부 일리노이 주립대학 등 2개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지원자가 10대 1에 이를 만큼 높은 경쟁률 속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미국대학 분교들이 일본에서 설자리를 잃었던 원인은 외국대학 학위가 일본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외국대학 분교가 지방에서만 허용되도록 문부성이 규제한 점, 외국 대학들이 대학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노하우를 펼치도록 장려하고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일본에 진출한 대학들의 수준

13) 일본의 교육에 대한 정보는 Brian J. McVeigh, 『Japanese Higher Education As Myth』, M. E. Sharpe ; ISBN: 0765609258; (June 2002)를 참고.

이 낮은데다 비싼 등록금과 과대 선전에 실망을 느꼈고 이와 함께 일본 내의 대학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보수적인 일본 문화의 특성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외국 대학 분교를 유치하면서 단지 어학연수 기관 정도로 활용하는데 그쳐, 정부 지원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분교 중 1988년에 설립된 남부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경우 니가타 현과 일리노이주가 공동으로 교육경제위원회를 설립해 학교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 본교와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대학에 입학하면 동시에 본교 학생으로 관리된다. 랭귀지 코스를 거치거나 대학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미국 본교 편입이 가능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하는 전수학교 지위와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른 외국인 단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진출 유형은 독자적 운영을 하되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에 미국 대학들이 진출은 했으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실패하였다.

5) 대학 유치의 이유

외국의 입장에서는 대학원에 비해 대학의 경우는 투자의 리스크가 더욱 크기 때문에 진출은 망설이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에 의해 학교설립을 가능하게 한다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면제해준다던가 하는 여러 방식으로 부담을 최소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처럼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외국대학은 언제라도 철수할 것이다. 대학이 철수할 경우에는 대학원의 철수 때 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의 경우 대학교육은 영화 및 방송과 의료계를 누르고 다섯 번째 규모가 큰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공산도 큰 게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학원 유치가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며 경제적 효율성만 놓고 볼 때는 그러한 논리가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나 장사 잘되는 교육만 골라서 하자는 논리는 교육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회적 효율성을 망각한, 말 그대로 경제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단순히

대학원이나 대학이나 하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 다시 말하자면 교육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학원보다는 대학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교육과 대학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 점에서 대학원보다는 대학의 유치를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중등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국대학 유치 역시 이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우수한 외국대학 유치가 현재 한국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완화 또는 중재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기대이기는 하지만 난마처럼 얽혀있는 한국의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 측은 유학·연수자는 2002년 연말까지 36만명으로 종전 사상 최대였던 97년의 33만5,000명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유학, 연수 관련 송금으로 인한 이전수지 적자는 2002년보다 2003년에는 배 이상 늘어난 25억 달러에 이를 것¹⁴⁾이라고 했듯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는데 우수 외국대학이 유치되면 상당 수의 학생들이 외국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외화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학생들을 진학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수익에 대한 송금 문제 등 다양한 규제를 철폐해줌으로써 외국대학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수한 인재들의 굳이 외국으로 유학을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외국대학에 대한 규제 개혁과 함께 국내대학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철폐하여 학생 선발 및 학사운영에 대하여 완전한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국내대학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하며 경쟁력을 갖추진 못한 부실대학들은 자연 도태됨으로써 국내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행정당국

14) <중앙일보>, 2002년 12월 11일

으로부터 대학교육의 완전한 해방은 많은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없애줄 것이며 그만큼 대학은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학생 선발 및 학사운영에 대하여 완전한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입시체제에서 자유로와 짐으로써 대학은 수능시험이라는 일회적이며 형식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학생 또한 단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의 진로를 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국내외대학의 자율 경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소비자 즉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대학을 선택하며 건강한 대학만이 자유로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건강한 대학들은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대학으로 자리 매김 됨으로써 동남아시아 등지의 외국학생들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정원 창출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외국대학이며 아무 대학이라도 좋다는 사고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대학, 또는 적어도 확실히 더 좋은 대학이 아니면 한국 교육에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외국대학 유치에 계층 간 위화감, 일부 교육 종속화 현상, 교육 식민주의성향에 대한 우려, 외국대학 입시 과열 현상 등의 부정적 현상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외국 대학 설립 자유화는 외국 교육자본의 이윤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우리 교육의 자생력과 국적 있는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교육식민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충분하다.

6) 특화 전략

제주도가 우수한 외국대학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외국대학 유치위원회> (가칭)를 설치하여 해외의 우수한 대학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미국의 NCSCS(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나 CSS(College Scholarship Service) 등의 대학 해외프로그램 공인심사협회 등과 접촉하여 조사를 하고 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주도에 대한 외국대학들의 진출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가 국제교육 콤플렉스를 조성하게 된다면 단지 내에 외국대학이 직접 진출

하여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가 가장 가능성이 클 것이며 설령 콤플렉스 조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유형의 서비스 공급을 제주도 측은 바라는 것으로 안다.¹⁵⁾ 그러나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이 제 발 스스로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국 내에 가만히 있어도 외국유학생들이 대거 몰려드는데 별다른 경제적 이득도 보장받지 못하는 제주도에 들어올 이유가 만무하다. 그래서 인센티브 보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인센티브 보장 문제야말로 중심 의제가 되겠지만 과연 제주도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그리고 외국대학에서 요구할 여러 가지 인센티브 보장이 가능할 수 있는지 문제가 첫째 유형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에 외국대학 유치에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1~2개 이상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협상과정에서 우수한 외국대학들이 요구하는 인센티브는 물론이며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 1~2개 정도의 우수한 외국대학 유치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점에서 필자는 한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인 부산과학고등학교 입학생의 KAIST 입학 보장 조치를 보면서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외국어영재고등학교를 국제 교육복합지구 단지 내에 설립하고 그 학교의 입학과 우수한 외국대학의 입학 보장을 연계시킴과 동시에 제주도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는 일정 인원을 지역할당제로 선발하는 안을 제안해본다. 이러한 조치는 우선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의 수준이라는 것이 국내의 외국어 영재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외국대학에게 학생 모집을 일정 부분 보장해줌으로써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준다는 의미도 있다.

필자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운영은 고등학교와 연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기반 함으로써 일본에 진출했던 대부분의 외국대학들이 학생모집이 제대로 안 되자 대거 철수를 했던 점을 보완하고, 외국어영재고등학교가 기존의 여러 특수목적고등학교들처럼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략하는 위험성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15)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는 국제교육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기 이전부터 외국대학(분교) 유치를 위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이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법률정비를 기다리면서 후속 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제주도 교육청 측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기존의 특수목적고 체제인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거론하고 있지만¹⁶⁾ 특수목적고의 자퇴율은 2000년 2.7%, 2001년 2.81%로 증가세를 기록, 2년 연속 1.7%수준에 그친 일반계 고교 자퇴율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자퇴율이 높은 것은 대학진학시 학생부 기록 등 내신성적이 불리한데다 상위권 학생간 성적경쟁으로 인한 학습부적응 등이 영향을 미친 때문이며 또한 대학들의 인문계·이공계 교차지원 금지규정이 확대되면서 계열변경을 위해 자퇴 혹은 전학을 택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것이 당초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보다는 국제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외국어영재고등학교와 외국대학을 패키지로 연결시키고 제주도 지역학생들을 위해서는 일정 인원을 지역할당제로 선발하여 기숙학교(boarding school) 체제로 운영하는 공세적인 특화 전략을 한번쯤 생각해볼 만도 하다.

세계적인 대학, 또는 적어도 확실히 더 좋은 외국대학을 유치만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모여들지 않겠는가 생각할지 모르나 세계적인 대학, 또는 적어도 확실히 더 좋은 외국대학이라는 그 기준도 모호하지만 이런 대학들의 경우 특별한 인센티브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제주도에 진출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 동경대학교가 태국에 공과대학 분교를 설치하였지만 이를 위해 태국 정부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였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제주도에서는 신입생 보장과 같은 공세적인 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충분하다. 최근 자치단체들마다 여러 가지 공세적인 교육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특수목적고 정도를 설립하겠다는 정도의 안은 매우 안이한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제주도가 더욱 공세적인 전략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 형편에서 과연

16) 2002년 10월 19일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답변에 나선 조홍래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외국인 기간제 확충이나 외국어나 국제고 설립, 외국어담당교사를 장기간 해외 연수시켜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도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조기에 설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소망대로 우수한 외국대학을 과연 유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수도권 소재 대학에 대한 뿌리깊은 선호도를 고려할 때 과연 제주도에서 외국대학들이 교육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외국의 고등교육서비스에 기대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점은 그것이 우리 교육과 대학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인데 반드시 외국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면 이런 점에서 분명 우수 외국대학이 유치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수도권 선호를 극복할 수 있음은 물론 멀리 동남아시아 학생들도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관광명소로 부상하려는 제주도의 의지와 여건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외국의 유명 호텔학교, 요리학교 등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은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 남제주군에 따르면 스위스 루체른 시에 있는 DCT 국제호텔경영학교가 남제주군지역에 분교 설립을 적극 희망함에 따라 학교측에서 요청중인 학교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DCT측에서는 5만평의 부지 제공(임대)을 요청하면서 2005년초 개강을 목표로 8백억원 가량을 투입, 호텔학교 분교와 국제어학원, 호텔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분교(分校)를 자신의 마을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게 진행되면서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¹⁷⁾

수도권 소재의 일반대학 선호 경향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생모집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졸업생이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국제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외국대학 유치의 기본 의도를 둔화시킬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안정적인 취업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적인 외국대학 유치보다는 우수하고 특성화된 외국전문대학을 유치하려는 차별화된 전략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7) 프로그램 공동운영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대학의 경우 직접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직접적인 국내 설립의 형태보다는 오히려 국내 고등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및 교수의 교류 형태를 선호할 것이다. 외국대학은 기본적으로 영리

17) <한라일보>, 2002년 9월 26일

를 목적으로 국내로 진출하게 된다. 그런데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의 리스크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출 유형 중 예컨대 ‘국내기관의 하드웨어 제공 + 외국기관의 소프트웨어 제공’ 방식에 의한 합작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외국의 우수한 대학이 국내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외국 측 대학에서 일정한 학점을 추가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외국학위를 수여하는 방법을 통해 국내대학은 우수한 외국대학의 명성을 이용하여 우수신입생을 모집하고 외국 측은 학점교류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려는 계산이지만 현재 그 의도만큼 현실적인 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정한 수학 기간과 성적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외국에 본교로 유치하여 현재의 학위를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외국대학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분명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도내 대학과 외국대학과의 실질적인 프로그램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교류의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집중육성은 장기적으로 도내 대학과 외국대학 서로에게 득이 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큰 것이 사실이다. 말레이시아¹⁸⁾는 프로그램 공동운영 전략이 가장 뛰어난 나라이다.

말레이시아의 프로그램 공동 운영은 주로 사립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교육프로그램의 높은 질과 국제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국이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여 외국 모(母)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대학과의 긴밀한 연계 교육체제를 통해 학생들은 많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외국대학의 4년제 학위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사립대학에서는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외국대학에서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이점 중의 하나이다. 학생들은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 모(母)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내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 외국대학과의 연

18) 말레이시아의 교육에 대한 정보는 Donald C. Wilson David, L. Grossman, Kerry J. Kennedy (Editor) 『Asia and the Pacific: Issues of Educational Policy Curriculum and Practice』, Detselig Enterprises; ISBN: 1550590081; (December 1990)를 참고.

계를 통해 개설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TDP(Twinning Degree Programme), CTP(Credit Transfer Programme), ASEP(Advance Standing Entry Programme), 3+0 Programme, DLP(Distance Learning Programme)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뛰어난 프로그램 공동운영 전략은 제주도 소재 대학들이 검토해 볼 만한 요소가 많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지역 소재 대학들의 몫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대학들이 공동으로 구상해야 할 내용들이 분명하다. 말레이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단위 학교 차원에서 맡겨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 제주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략의 하나로 지역 소재 대학들의 프로그램 공동운영 전략을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상주 외국인들의 추이를 보면서 외국인학교를 설치하고 지원하기보다는 투자환경 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제주도에 미리 외국인학교를 설치하고 내국인들을 제한 없이 입학시키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안이다.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체제로서 외국인학교는 그것대로, 외국어강화와 국제인력 양성을 위한 체제는 또 그것대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이 외국인학교와 공교육을 현명한 방안이 될 것이다.

외국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율성만을 인식하는 전략보다는 교육의 장기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교육과 대학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선택이 바람직하다. 이와 병행하여 제주도 소재의 대학들과 외국대학들과의 프로그램 공동운영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대학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국제화 교육의 여건 조성은 물론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큰 기여를 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이 단순한 희망 사항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 선택과 배제의 원칙으로서, 외국교육 체제라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점은 선택하고 단점은 적극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외국대학 문제의 경우 세계적인 대학, 또는 적어도 확실히 더 좋은 대학이 아니면 한국교육에 오히려 해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우수한 외국대학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적극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집중과 공유의 원칙으로서 선택된 우수 외국교육 체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고 그 효과와 순기능을 제주지역과 비례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지 못할 경우 시장보호적 관점에서 저항은 반드시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자료, 2002.

양진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고등교육의 변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대응방안』, 제주도의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2002.11.

정일환, 김정희, 주동범,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02.8.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단 각종 보고서

Brian J. McVeigh, 『Japanese Higher Education As Myth』, M. E. Sharpe ; ISBN: 0765609258; (June 2002)

Donald C. Wilson David, L. Grossman, Kerry J. Kennedy (Editor) 『Asia and the Pacific: Issues of Educational Policy Curriculum and Practice』, Detselig Enterprises; ISBN: 1550590081; (December 1990)